

쌍용차 “스마트폰보다 더 똑똑한 車 만들 것”

쌍용자동차 미래차 포럼

‘커넥티드 카’ 내년 출시 예정
자율주행차, 안전성 최우선으로
카 셰어링·개인 서비스 개발중



자율주행차를 시연 중인 쌍용자동차 티볼리 에어. /쌍용자동차

자동차와 정보기술(IT)이 만났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1일 미래자동차 신기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자동차와 IT기술이 결합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량기술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교석 쌍용자동차 팀장은 “지금의 커넥티드 카는 통신내장형으로 자체 통신을 이용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며 “독립적으로 주변 사물과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자동차는 커넥티드 카의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앱 업데이트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며 “주차장, 주유소 등 상세정보를 관리해 운전자에게

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차량 내 와이파이 핫스팟을 제공할 예정이며 AI 음성인식 제어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6년 커넥티드 카 TF가 출범했으며 2017년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오는 2019년 출시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는 커넥티드 카의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음성인식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가 단기 내 보편화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 서비스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나아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가 제시한 커넥티드카의 10대 기술 중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아이오티, 음성인식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열골표정과 안면근육 등의 움직임을 통해 생체인식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개발의 목표와 성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창섭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며 “교통사고 원인 중 90%는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개발되면 운전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교통 효율을 증대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차는 기술력에 따라 레벨0부터 5가지 구분되고 있다. 레벨3부터 제한적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을 떠날 수 없으며 완전한 자율주행은 레벨5부터 가능하다.

그는 “자율주행차 레벨5의 경우 자동차

가 알아서 목적지로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운전석과 운전대가 필요없다”며 “그러나 완전한 자율주행에 이르기 위해서는 20~3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기술에는 자율주행 센서, HD급 전자지도, V2X, 주행제어 및 판단 시스템, 기능안전 시스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자동주행 시스템 등이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무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반의 카 셰어링 서비스 등의 개발을 계획 중이다.

차 앞에 위험물 있으면 차선을 바꿔 피해갈 수 있는 전방추돌경보, 자동 긴급제동,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 연구원은 “쌍용자동차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며 “사명감을 갖고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위라벨 바람에 ‘저녁 있는 아파트’ 인기

문화·복합단지, 숲세권 아파트 주목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저녁·주말 시간이 확보되자 출·퇴근이 편한 곳보다는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단지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 특히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문화시설이 조성된 단지가 인기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순위 마감 단지를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분양한 194개 단지 중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42.8%(83개)다. 그중 청약경쟁률 최상위를 기록한 단지들은 주변에 녹지가 풍부하거나 문화 인프라가 잘 조성됐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대구6편한세상 남산’으로 경쟁률이 346.51대 1이다. 이 단지는 달산공원과 두류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문화예술회관도 가깝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는 그린프리미엄을 갖춘 동탄2신도시 ‘동탄역 에미지 3차(106.81대 1)’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한강공원 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79.9대 1)’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교통 환경이 좋아지거나 개발호재를 갖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까지 높은 주거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고 말했다.

이에 녹지가 풍부하거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단지들이 줄줄

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54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중동’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전용 84~141㎡ 999가구, 오피스텔 단일면적 전용 84㎡ 49실,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로 구성돼 있다.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가깝고, 약 12만㎡ 규모의 부천중앙공원이 바로 앞에 있다.

유림E&C도 이달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서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71~96㎡ 아파트 312가구와 전용면적 22~33㎡ 규모의 오피스텔 600실 등 912가구다.

현대건설도 같은 달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9번지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6층 규모며, 아파트 3개동에 전용면적 78~114㎡ 256가구, 오피스텔 1개동에 전용면적 24~27㎡ 138실로 조성된다. 인근에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호수공원 등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7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1-2번지 일대에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44㎡ 983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동쪽에 흥골천이 흐르고 서쪽에 석남천 수변공원이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위라벨 환경 갖춘 7월 신규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	위라벨 환경	건설사
경기 부천시 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999(아)	84~141	부천중앙공원 문화예술회관	현대엔지니어링
		49(오)	84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312(아)	71~96	동탄여울공원	유림E&C
		600(오)	24~27		
경기 용인시	신동백 두산위브 더제니스	1,187	69~84	동백호수공원 석성산, 에버랜드	두산건설
강원 속초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256(아)	78~114	설악산, 호수공원 속초해수욕장	현대건설
		138(오)	24~27		
충북 청주시	청주 가경 아이파크	983	84~144	흥골천, 석남천 수변공원, 감나무실공원	HDC현대산업개발

상기 분양 개요는 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자료=리얼투데이



12일 안드로이드 오토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구글

현대차+구글+카카오내비 ‘스마트 드라이빙’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첫 선
내비·음악감상·전화, 문자 전송
한국어 음성명령으로 조작 가능

구글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구매할 필요 없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자동차로 확장해 주행 중에도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12일 국내에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미국에서 출시한 지 3년 만으로 영어 외의 언어로는 한국어가 처음이다.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비트36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렌스 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젝트 매니저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운전 그 자체인데 요즘 운전자들은 음악을 듣고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고안했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2015년 현대자동차에 처음 적용됐으며 출시 이후 현재까지 50개가 넘는 업체의 500개가 넘는 차량 모델에 지원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능은 내비게이션, 음악 감상, 커뮤니케이션(전화, 메



12일 안드로이드 오토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로렌스 김(Lawrence Kim)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리드 프로젝트 매니저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글

시지) 등 크게 3가지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내비게이션 기능에는 ‘카카오내비’ 앱이 기본 앱으로 탑재돼 있다. 또한 이 기능들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다.

사용자가 “오케이 구글. 인천 공항 가는 길 알려줘”라고 말하자 안드로이드 오토가 길 안내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멜론, 벅스, 지니뮤직, 팟티 등 국내 인기 음악과 팟캐스트 앱을 사용할 수 있어 주행 중에도 언제든 원하는 노래 제목을 명령해 편하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

또 “엄마한테 지금 출발한다고 문자 보내줘”라고 말하면 메시지를 전송해

주며 답장을 읽어주기도 한다. 날씨와 백화점 영업시간과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이날 안드로이드 오토의 시연을 진행한 존 최 안드로이드 오토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구글어시스턴트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이용법은 간단하다. 안드로이드 오토 앱을 다운로드 후 환되는 자동차에 USB케이블을 꽂으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날 참석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개발실장 추교용 이사는 “편리하고 유용한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넘어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안드로이드 오토의 파트너사다.

윤주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기술책임(CTO)은 “주행 중 안전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 구현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오토와의 최적화를 완벽하게 마쳤다”며 “이 순간에도 카카오내비는 유저 트래픽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